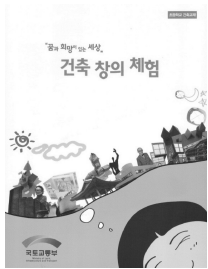


건축계소식

초등학생용 건축교재,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건축 창의 체험」 발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 3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 등을 거쳐 초등학생용 기초 건축교육 교재인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건축 창의 체험」을 발간했다.

이번 교재 발간은 건축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요소들을 발굴,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사회 공공재인 건축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

고, 이를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교통부의 기획 및 총괄 하에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건축학회가 교재의 연구와 집필을 맡았으며, 건축계·교육계 등 각계 4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재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서와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로 나누어 각각 개발·발간했다. 기본서의 주요 목차는 '1장_사람과 건축', '2장_건축과 조형', '3장_방 만들기', '4장_집과 생활', '5장_건물과 사회', '6장_마을과 도시 만들기' 총 6장으로 구성해 어린이들의 흥미유발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는 기본서의 내용에 맞추어 자세한 보충설명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교재의 사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인쇄본 구입을 원할 시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서울건축 가이드북', '서울건축 문화지도' 발간



서울시에서는 시내에 소재한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 문화지도」를 발간했다. 가이드북과 문화지도는 서울의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안내서와 투어 지도다.

서울시는 이번 발간을 통해 의미 있는 건축문화자산을 홍보하고 장소의 의미와 주제가 있는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울건축 가이드북」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총 380여개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수록한 서울건축의 안내서로, 각 건축물들에 대한 설명을 시대별·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시대별 서울이야기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변화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건축 문화지도」에는 서울시의 의미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쫓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10개의 투어 코스(한양도성, 대학

로, 테헤란로, 도시주거 등)를 개발하여 수록했다. 각 권마다 시간대별 답사 코스를 마련, 소요시간에 따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문화지도」는 각 구청 민원실, 서울 시청 시민청 및 서울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제공이 추진 중이다. 또한, 201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서 서울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판도 제작할 예정이다.

2013 BIM AWARDS 수상자 선정



BIM Awards 2013 심사결과 BIM Vision 부문에 부산항만공사, BIM Construction 부문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BIM Design 부문에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BIM Green 부문에 한양대학교 친환경경건축연구센터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빌딩스마트협회는 국내 건설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공공발주자, 건설사, 설계사, 엔지니어링사 등)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BIM기술의 올바른 활용 및 확산을 장려하고자 BIM Awards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심사에 이어 지난 10월 24일(목) 응모기관의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화 평가를 실시해 부문별로 대상과 우수상을 결정했으며, 그 외의 응모작품들 중 BIM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서의 수준을 충족하는 작품들을 Good Practice로 선정했다.

BIM Vision 부문에서 대상은 부산항만공사, BIM Construction 부문에서 대상은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우수상은 (주)포스코건설과 (주)동양구조안전기술이 선정되었다. BIM Design 부문에서 대상은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상은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BIM Green 부문에서는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BIM Implementation 부문에서 우수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포스코건설, (주)석영시스템즈 팀과 비유엔빌더스(주)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시공 BIM으로 Best Interoperability로 선정됐다.

건축계 BIM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평가와 토론에 의해 각 분야별 대상수상작품을 대부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BIM AWARDS의 시상식은 11월 26일 buildSMART Conference 2013 행사 중에 개최됐으며, 수상작품들은 Conference에서 전시됐다. 빌딩스마트협회 홈페이지의 웹 갤러리에서는 BIM AWARDS 수상작들을 상시 전시를 하고 있다.